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제8회 국제심포지엄 성료

##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이용·개발’ 지상중계

>>> [ 취재 \_\_ 현시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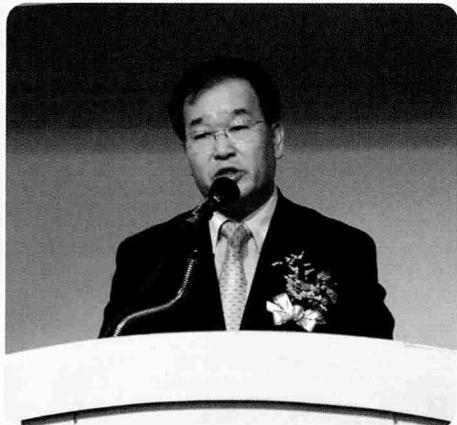
(사)한국단미사료협회가 주최하고 농림부가 후원한 제8회 국제심포지엄이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이용·개발’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이른 9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호텔 센트로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과 약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협회 유동준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축사



## 제8회 국제심포지엄



▲ 축사 -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



▲ 축사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



▲ 좌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

를 맡은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는 축산업이 지속된 시장개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축산농가와 정부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은 발표가 시작되기 전 좌장으로서 시간관리를 잘해서 정해진 시간에 심포지엄이 끝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오늘 하루를 축산과 사료에 대해 공부하는 날로 정했다고 전하며 심포지엄에 참석한 청중 모두 즐겁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제1주제는 '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 결과와 대응 방안'으로 농림부 이상수 과장이 발표했으며, 제2주제는 강원대학교 오상집 교수가 '유기축산을 위한 사료의 개발 및 활용'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농협축산연구소 이명일 소장과 퓨리나 코리아의 김양희 차장이 참석했다.

또한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이후 제3주제는 Altech의 호주지사에서 온 Kocher 박사의 '해외사료원료(DDGS)의 효과적 이용'으로 중앙대학교 백인기 교수가 통역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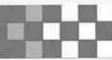
토론에는 백인기 교수와 (주)태영인더스트리 이응호 이사가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제4주제는 '국내사료자원의 개발 및 이용'으로 축산과학원 조사료자원과 서성 박사가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장문백 교수와 에버그린영농조합 임형관 조합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발표자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상수 과장

## 제1주제 발표



### 『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를 한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상수 과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 농산물 쪽에서는 한국이 수세적 입장이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협상결과 유일하게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것이 낙농품 중 전지·탈지 분유와 천연꿀이며, 쇠소기는 15년동안 관세를 균등 철폐함으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FTA가 타결되던 4~5월 달은 원래 소 값이 떨어지는 시기인데도 매스컴에서 FTA로 인해 소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해 농민들을 동요하게 한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돼지고기 협상결과 냉장육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으며, 농림부는 국내 기관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앞으로는 냉장육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장기적인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더 많이 수입하는 냉동육보다 냉장육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현재 MSY(모돈두당출하두수)가 13두가 채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으며, 지금의 상태로 나아간다면 양돈농가가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품의 경우 미국산 낙농품이 무관세쿼터로 수입될 경우 국내 잉여우유가 증가하여 수급 불안정 및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우유수급조절개

- ▶ 자리를 가득  
채운 내빈들이  
농림부 축산경  
영과 이상수  
과장의 발표내  
용을 경청하고  
있는모습





선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유업체들과 3년연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는 없다고 밝혔으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부는 돼지의 소모성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미사료 부분에서는 혈장의 경우 열처리 방법을 바꾸는 등의 사료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UR등을 거치며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정부·농가·학계가 힘을 모은다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 제2주제발표 및 토론

### 『유기축산을 위한 사료의 개발 및 활용』



▲ 발표자 강원대학교 오상집 교수



▲ 토론-농협축산연구소 이명일 소장



▲ 토론-퓨리나 코리아 김양희 차장

한미 FTA체결로 인해 국내 축산의 경쟁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학교 오상집 교수는 유기축산을 위한 사료의 개발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유기사료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고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기사료를 정리했으며, 유기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가공법 등을 제시했다.

먼저 유기사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한 후, 호마박, 녹즙박, 가시오가피박, 두부박, 해조류 등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 단미사료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대부분의 해조류의 경우 건물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유기사료의 의미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기사료화가 가능한 부존자원의 다양한 종류를 열거했으며, 지역별 유기농산물의 인증현황을 설명하며 “부산물로 이용할 수 있는 유기 농산물(호밀, 귀리, 기장, 고구마, 배추 등)은 지역마다 존재한다.”고 말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유기곡류의 생산이 시도되어야 이에 필요한 한국형 유기 농업기술이 축적 될 수 있으므로 소량이나마 유기 곡류나 유실류의 국내 생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기사료와 일반사료의 차이점으로는 산란율과 사료섭취량, 사료 요구율 등은 대등하지만 유기사료는 일반사료와 달리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내산 유기사료의 개발과 생산이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내 유기사료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산학협동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농협축산연구소 이명일 소장은 “농협축산사료연구소가 국내에서 최초로 유기축산사료를 시범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만약 이전에 오상집 교수의 발표를 들었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기축산을 말한다면 식품의 안전성 문제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도 거론되어야 함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 유기농작물을 재배해 보니 토양의 질소량이 줄고 전체 질소 cycle이 예전으로 환원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기축산이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오상집 교수는 유기농업을 하는 토양은 그렇지 않은 토양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첫 2년에만 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유기농업이 생산성 면에서 더 높았다는 스위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생산측 면에서 유기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유기축산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제3주제발표 및 토론

#### 『Corn: Fuel,Food or Feed? What is the Impact on animal production』



▲ 발표자 Dr. A. KOCHER  
[(주)Altech(Australia)]



▲ 토론-중앙대학교 백인기 교수



▲ 토론-(주)태영인더스터리 이옹호 이사



▲ 통역을 맡은 중앙대학교 백인기 교수

현재 세계적으로 7억톤의 사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2050년 정도 되면 15억톤의 사료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곡류요구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2017년까지 350억 갤런의 에탄올 생산을 할 것임을 발표함에 따라 옥수수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며, 가솔린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일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



## 제8회 국제심포지엄

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에탄올을 생산하고 남은 옥수수 주정박(DDGS; 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을 이용해 사료원료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며 DDGS의 생산공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DDGS의 문제점으로 마이코톡신의 함유와 열처리 과정 중 제품의 변이가 심한 것을 지적했으며, 제품의 변이는 고상식 발효방법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DDGS는 돼지에서 옥수수와 같은 영양을 가지고 있으며, 인의 이용률을 높여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회장염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주)태영인더스트리 이응호 이사는 마이코톡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축종별로 DDGS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는지를 질문했으며, 이런 기술세미나 들을 활성화 시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Dr.Kocher는 이에 대해 가금사료에 15%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며, 돼지에서 임신돈 50%, 육성돈 30% 사용 시 큰 문제는 없지만 DDGS의 질에 따라 사용하는 양이 달라지므로 그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인기 교수는 토론에서 “‘앞으로 DDGS의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염려에 불과하고 에탄올 생산을 위한 다른 대체에너지 생산에 주력해야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 제4주제발표 및 토론

####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 및 이용』



▲ 발표자 축산과학원 조사료자원과  
서성 과장



▲ 토론-중앙대학교 장문백 교수



▲ 토론-에버그린영농조합법인 일형관  
조합장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 및 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축산과학원 조사료자원과 서성 과장은 ▶우리나라 조사료자원 생산기반 ▶수입조사료 ▶국내 조사료자원 개발·이용 ▶전망 및 금후발전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내에서 조사료를 생산, 자급할 수 있는 논, 밭, 임야, 간척지 등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논을 이용한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이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료용 총제보리는 수입 조사료와 사료적 가치가 비슷하고 수입조사료 대비 25~40%정도 까지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총체보리 사일리지는 한우에서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도 매우 우수하며, 착유우에 급여 시 산유량에도 옥수수구와 대등한 성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산성과 가축기호성이 높은 품종을 지속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사일리지의 품질균일화를 위해 옥수수, 총체보리, 이탈리안 등 사료작물에 대해 생산실명제를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임형관 조합장(에버그린영농조합)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연중 365일 공급을 할 수 없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으로 TMR 공장에서는 365일 이용해야 하는 조사료를 한꺼번에 구매해야 하므로 가격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내산 조사료 이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작부체계를 통해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과 경종이 유기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성 박사는 앞으로 사료작물생산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품질향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우수한 조사료 생산업체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도 토론에 참여하여 조사료 생산 수급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TMR공장에서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했다. ⓤ



## 제8회 국제심포지엄 이모저모



▲ 개회사를 하는 유동준 회장



▲ 좌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



▲ 주제발표가 끝나고 토론 중인 Dr.Kocher 와 중앙대학교 백인기 교수



▲ 심포지엄 개최 전 담소를 나누는 내빈들



▲ 1주제 발표 후 열띤토론



▲ 4주제 발표를 듣고 질의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



▲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 중 청중이 질문을 하고 있다.



▲ (좌) 김달중 차관보, 최정섭 원장, 남호경 회장, 조병석 회장